

농촌진흥청(주)에스씨바이오, 저메탄 사료 소재 기술이전 협약 체결

- 국산 저메탄 사료 소재 상용화 추진...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 속도
- 한우 생산성 유지하면서 메탄 28~34% 줄이는 원천기술 이전
- 제품화·인증·유통 협력 통해 농가 보급 기반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5월 28일 친환경 바이오소재 전문기업 (주)에스씨바이오(대표 이창훈)와 티아민이인산 기반 저메탄 사료 소재 산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저메탄 기술의 산업화와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협약 대상 기술인 ‘티아민이인산 기반 저메탄 사료 소재’는 한우의 생산성을 유지하며,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28~34% 줄이는 효과가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협약으로 저메탄 사료 소재 원천기술을 제공하고, 기술 자문, 효능 검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에스씨바이오는 이를 바탕으로 제품화(제형화)와 대량 생산 체계 구축, 인증과 현장 보급 기반 마련 등 국산 메탄저감제 상용화를 추진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기술이전 협약으로 효능이 검증된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혼합제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축산분야 탄소중립 정책 대응과 친환경 축산업 전환에 기여하고, 국산 메탄저감제 보급으로 메탄저감제 시장 경쟁력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에스씨바이오 이창훈 대표이사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를 보급하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저메탄 사료 소재가 민간 기업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되는 실용 기술 개발과 산업화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립축산과학원-(주)에스씨바이오 기술이전 협약 개요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정밀영양과	책임자	과 장	이성대 (063-238-7450)
		담당자	연구사	이성신 (063-238-7461)
				

□ 개요

- **협약명:** 국내 개발 메탄 저감 소재 기술이전 협약식
- **일시/장소:** 2026.05.28.(목). 15:00~17:00, ㈜에스씨바이오
- **협약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에스씨바이오
- **협약 기간:** 체결일로부터 3년('26. 05. 28. ~ '29. 05. 27.)

□ 주요 협약내용

- 개발 메탄저감 소재 관련 연구 정보 공유 및 기술 자문
- 메탄저감제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제품 등록 및 상용화 협력
- 메탄저감제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분석 정보 및 인적 교류 확대
-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보 및 농가 대상 홍보·브랜드화 추진

□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메탄저감제에 대한 국산 기술력 확보
 - 효능이 검증된 소재를 통한 다양한 혼합제제 개발 기반 마련
- **사회·경제적 측면**
 - 축산분야 탄소중립 정책 대응 및 친환경 축산업 전환에 기여
 - 국산 메탄저감제 농가 보급을 통한 메탄저감제 시장 경쟁력 확보